

## 성명서

###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한다

결국 북한이 오늘 오전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우리는 북한의 이번 행동을 강력 규탄하며, 우려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인류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핵을 이용한 실험과 무기개발, 사용 등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남북 및 세계 평화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뿐이다. 또한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등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의 많은 환경, 시민 단체들도 북한의 핵실험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우리는 단연코 한반도를 핵의 위협에 빠뜨리는 핵무기 개발을 반대한다.

한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당선인은 그동안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선제타격' 등 강경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오히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 북한이 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화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2013년 2월 12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미래연대, 녹색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 부산시민발전소, 삼척핵발전소(핵단지)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에너지전환, 진보신당,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미래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을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간사(010-3210-0988)